

## 아몬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독특한 소년의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성장 이야기



## 『아몬드』 리딩가이드



### 저자소개

#### 손원평

손원평 작가는 서울 출생으로,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했습니다.

『아몬드』는 제10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으로, 아시아권 최초로 일본서점대상 1위를 기록하고 30여 개국에 번역·수출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서른의 반격』과 『프리즘』으로 일본서점대상, 니쿠텔코보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아몬드』는 어떤 책일까요?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소년 윤재가 세상과 마주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도 할 수 없을까요?"

"괴물이라 불린 두 소년은 어떻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요?"

이 책은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인지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윤재가, 세상의 편견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을 배워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극진한 사랑, 그리고 곤이라는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윤재는 서서히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혀갑니다. 이야기는 윤재의 차분한 독백을 따라 전개되지만, 독자는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지닌 감정이 때론 얼마나 버겁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진심 어린 연결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소설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 『아몬드』 리딩가이드

## 학습 목표

### 1. 감정과 공감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른다.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인물 ‘윤재’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2. 편견과 다름에 대한 태도를 성찰한다.

사회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차별과 편견을 인식하고 돌아본다.

### 3. 인간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윤재가 가족, 친구,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감정을 배워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이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 이해한다.

## 목차

| No | 구분        | 내용           |
|----|-----------|--------------|
| 1  | 읽기 전 활동 ① | 주제 키워드 추측    |
| 2  | 읽기 전 활동 ② | 내 경험 연결      |
| 3  | 발췌문&질문 ①  | 위로           |
| 4  | 발췌문&질문 ②  | 솔직함          |
| 5  | 발췌문&질문 ③  | 부모의 꿈        |
| 6  | 발췌문&질문 ④  | 감정           |
| 7  | 발췌문&질문 ⑤  | 정상           |
| 8  | 발췌문&질문 ⑥  | 구원           |
| 9  | 발췌문&질문 ⑦  | 선택           |
| 10 | 발췌문&질문 ⑧  | 방관           |
| 11 | 읽은 후 활동 ① | 가상 인터뷰       |
| 12 | 읽은 후 활동 ② | 나에게 주는 의미 정리 |

## 『아몬드』 리딩가이드

[별점 이야기] 전 세계 기아의 실태와 배후 요인들을 추적한 이 책 어떻게 읽었나요?

책을 읽은 뒤 별점을 매기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 별 점 | ☆☆☆☆☆ / 5 |
|-----|-----------|
|     |           |

[읽기 전 활동 1] 주제 키워드 추측

“아몬드”, “감정”, “편도체”, “괴물” 등 제목과 책 소개에서 추론되는 핵심 단어를 떠올려 보고,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읽기 전 활동 2] 내 경험 연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도 이야기해보세요.



1. [위로] 주인공은 자신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이유를 묻습니다. 할멈은 그게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남과 다른 걸 참지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특별하다는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결결하게 일갈한 할멈은 아이들에게도 한소리 하는 걸 잊지 않았다.

- 뭐가 재밌다고 보고들 있어? 못난 것들

무리에서 꽤 멀어졌을 때쯤 할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꼭 다문 입이 앞으로 쪽 내밀어져 있었다.

- 할멈, 사람들이 왜 나보고 이상하대?

할멈은 내민 입을 집어넣었다.

- 네가 특별해서 그러나 보다. 사람들은 원래 남과 다른 걸 배기질 못하거든. 에이그, 우리 예쁜 괴물. (p.21)

- 튀지 말아야 돼. 그것만 해도 본전이야.

그 말은 들키지 말라는 뜻이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걸. 그걸 들키면 튀는 거고 튀는 순간 표적이 된다. 단순히 차가 다가오면 몸을 피하라는 수준의 지침으로는 부족했다. 스스로를 감추려면 고도의 연기가 필요한 타이밍이 온 거다. (p.35)

2. [솔직함] 엄마는 '너무 솔직한 말은 상처를 준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 덕목을 외울 정도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한 말과 배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나요?

엄마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려는 몸부림에 더 가까웠다. 엄마의 말대로라면 사랑이라는 건, 단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 게 사랑이라면 사랑 따위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물론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엄마의 행동 강령 중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덕목을 입이 닳도록 외운 덕이다.

**선택 1** 나는 상처 줄까봐 말을 아끼는 편이다.

**선택 2**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부모의 꿈] 이 발췌문은 누군가의 과거와 상처, 꿈을 통해 부모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부모도 한 때는 꿈을 꾸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 꿈'을 알고 있나요?

현책방은 현실적인 엄마가 내린 가장 비현실적인 결정이었다. 그건 엄마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꿈이기도 했다. 한때는 할멈의 소망대로, 엄마에게도 작가가 꿈인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인생이 활귀고 간 자국들을 엄마는 차마 글로 쓸 수가 없다고 했다. (p.48)

4. [감정] 주인공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상태는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나요, 아니면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나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엄마였다. 하지만 뇌가 깊은 잠에 빠져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무척 낮았고 깨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닐 거라도 했다. 희생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나만 빼고는 모두가 울고 있었다. 처참하게 죽어 버린 가족 앞에 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몸짓과 표정으로. (p.64)

**선택 1** 숨기는 편이다. 보여주는 게 더 힘들다.

**선택 2** 표현하는 편이다. 말해야 누군가 이해해 줄 수 있다.

5. [정상] '정상'이란 말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기준이 있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상'이라는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게 어떤 거니?  
남들과 비슷한 것.  
남들과 비슷하다는 건 뭘까.  
사람은 다 다른데 누굴 기준으로 잡지? (p.71)

- 선택 1** 기준이 있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선택 2** 그 기준이 누군가를 배제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6. [구원]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책임을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 일은 때로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누구 나 변할 수 있다고 믿나요,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사형수 출신의 미국 작가 P.J. 놀란이 한 말이다. P.J. 놀란은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수감 생활 동안 자전적 에세이를 썼다. 훗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P.J. 놀란은 그 사실을 영영 알 수 없었다.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됐다.

- 선택 1** 누구든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선택 2**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를 구할 수는 없다.

7. [선택] 부모가 기대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삶이 다를 때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의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자기 인생의 방향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기대와 내 선택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나요?

- 그럼 부모님은 내가 뭘 하길 바라셔?

- 몰라. 전엔 그렇게 운동이 하고 싶으면 그나마 돈이 되는 골프를 하래. 그러더니 이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디가서 부끄러운 자식만 되지 말래. 자기네들 맘대로 낳아 놓고 왜 자기들이 정한 미션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후회할 거라고 자꾸 협박하는데 후회를 해도 내가 하는 거잖아. 이름대로 가는 수밖에. 이도라라고 지어 났으니까 또라이 돼야지. 뭐.

선택 1 부모 기대에 더 맞추며 살고 있다.

선택 2 내 선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8. [방관] 그날 사람들은 눈앞의 일을 보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은 방관이 되고, 방관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관과 책임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나요?

채널을 무심히 돌리던 엄마나 할멈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멀리 있는 불행은 내 불행이 아니라고, 엄마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엄마와 할멈을 뺀히 바라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날 사람들은? 그들은 눈앞에서 그 일을 목도했다. 멀리 있는 불행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리였다.

선택 1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 행동까지는 어렵다고 본다.

선택 2 눈앞에서 본 일에는 어느 정도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읽은 후 활동 1] ◆ 가상 인터뷰**

윤재, 곤, 엄마 등 주요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 가상 인터뷰를 구성해 보세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같은 질문과 답을 만들어봄으로써 인물의 감정과 사고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은 후 활동 2] ◆ 나에게 주는 의미 정리**

이 책이 내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오래 남았는지를 글이나 말로 정리해 보세요. 내 삶과 감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